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노조대표자 총투쟁 '결의'

⌘ 노동과 세계 | ⓒ 승인 2008.05.24 13:35

총연맹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 투쟁결의 대회에 네티즌들도 참석해 연대투쟁 다짐

[사진1]

민주노총이 24일 아침 11시 서울 목동 소재 한국방송회관에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저지투쟁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 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석달만에 지지율이 25%대로 곤두박질 쳤다"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이명박 정부 비판을 주도하며 인터넷과 현장에서 적극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 현장순회 도중 한 여학생이 어른들이 나라를 다 망쳐놨다, 대통령을 잘 못 뽑아 이렇게 됐다, 우리가 바른 정치와 미국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것을 괴담이라고 대통령이 말했고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현 상황에서 언론노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른 언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2MB와 만날 생각 없다, 2MB에 맞서 일년내내 투쟁한다...6월19일 민주노총 임시대회 개최"

이 위원장은 이어 "모든 부문 문제를 개별 문제가 아닌, 전체 민중문제로 바라보자"고 강조하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 해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광우병위험 쇠고기를 수입 보관하는 냉동창고는 모두 14곳에 이르고, 이제 민주노총이 막겠다"고 투쟁을 다짐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또 "이명박정부와 지금 만날 생각이 없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과 노동계급을 위해 1년 내내 투쟁할 것이고, 노동자들 모두 창끝을 뾰족하게 갈고 날을 세워 총력투쟁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주노총이 되자"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6월 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며 전국단위노조대표자 동지들이 민주노총 임시대회 성사를 위한 조직화와 사수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자 참가자 전체는 '투쟁'이라고 화답했다.

16만 네티즌 회원 둔 인터넷카페 운영자 결의대회 참석 "민주노총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정권 퇴진에 노력해달라" 당부

[사진2]이날 결의대회에는 지난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이명박을 외치며 첫 촛불집회를 주도한 16만명의 네티즌들이 가입한 이명박탄핵연대 대표와 운영진이 참석해 네티즌 발언에 나섰다.

카페운영자인 네티즌 '나무도령'씨는 탄핵연대카페 결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그는 전과 14범 범 죄자이고,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이유때문이고, 특히 과거에 대한 반성 한 마디 없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행태만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믿음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투쟁을 시작했고, 우리 네티즌들은, 그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하더라도 그가 물러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연대카페 운영자는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노동자이고, 또 노동자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국민생존권, 국민주권을 지키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해서 이 나라 양심과 원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사태도 이명박이 불러 왔거나 불러 올 수많은 잘못 중의 하나이고, 그가 퇴진했을 때만이 다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민주노총이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3백5십여 단위노조대표자와 산별연맹대표자, 지역본부장 등은 “고시철회 (한미쇠고기협상)즉각 재협상, 국민생명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장관 고시 강행에 따른 반광우병 투쟁과 함께 6말7초 산별공동임단투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본대회 개최에 앞서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공공부문 7개 조직 공동투쟁 결의대회에는 약 3만5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장관을 연출했다. 특히 전교조는 결성 19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교사노동자 1만5천여 명이 참석해 공교육 수호 등을 외치며 총투쟁을 결의했다.

중2학년 여학생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항의, 이십여일째 등교거부</p></div>

전교조 전국교사대회에서는 경기도 소재 모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이명박정부의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항의하며 20여 일 이상 자발적으로 등교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학생은“이명박대통령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등교거부를 하겠다”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공부하면 뭐 하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성을 표현했다. 학교 측에서는 오는 27일까지 복교하지 않을 경우 학교규정에 따라 조치 하겠다는 통고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오후 4시 공공부문 공동투쟁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7시 서울청계천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대거 합류한다. 사상 최대의 ‘반이명박 촛불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